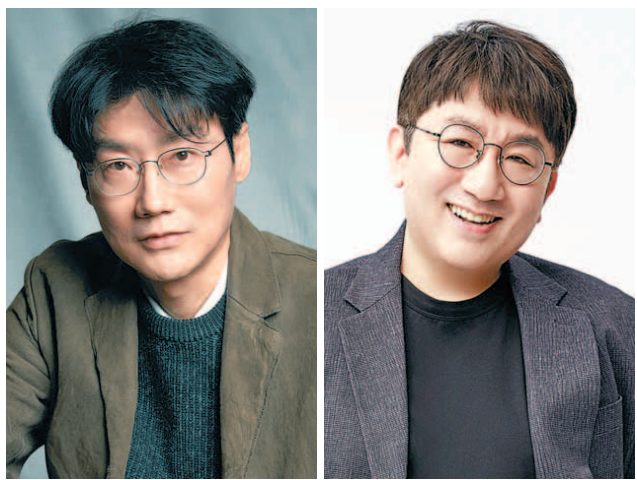




황동혁 감독

방시혁 의장

‘오겜’ 황동혁 감독·방시혁 의장 세계 트렌드 이끈 ‘올해의 50인’

올해 전 세계에서 ‘케이(K) 콘텐츠’ 열풍을 일으킨 두 주역이 미국 언론이 선정한 ‘올해의 50인’에 포함됐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게임’의 연출자 황동혁 감독과 그룹 방탄소년단의 소속사인 하이브의 방시혁 이사회 의장이자이다.

두 사람은 2일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의 매거진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정치·경제·엔터테인먼트 등 각 분야에서 세계 트렌드를 이끈 인물을 선정해 발표하는 ‘2021 올해의 50인’에 이름을 올렸다. 매체는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게임’이 “전 세계 1억4000만명 이상이 시청한, 넷플릭스 사상 가장 인기 있는 TV프로그램이다”고 썼다. 방 의장은 “그룹 방탄소년단을 통해 케이팝을 미국 음악계의 중심에 올려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올해 4월 아리아나 그란데와 저스틴 비버 등이 소속된 이타카홀딩스를 인수하기도 했다.

한편 황 감독·방 의장과 함께 이화성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의장도 명단에 들었다. 윤여수 기자



‘단거리 여제’ 일레인 톰프슨(왼쪽)과 ‘허들 황제’ 카르스텐 바르홀름이 2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2021년 올해의 선수 시상식 도중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출처 | 세계육상연맹

‘허들’ 바르홀름 ‘단거리’ 톰프슨 세계육상연맹 선정 ‘올해의 선수’

‘허들 황제’ 카르스텐 바르홀름(25·노르웨이)과 ‘단거리 여제’ 일레인 톰프슨(29·자메이카)이 2021 세계육상연맹 ‘올해의 선수’로 선정됐다.

세계육상연맹은 2일(한국시간) 모나코에서 2021년 올해의 선수 시상식을 열어 바르홀름과 톰프슨에게 상을 전달했다. 바르홀름은 7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린 세계육상연맹 다이아몬드리그 남자 400m 허들 결선에서 46초70의 세계신기록을 세웠다. 1992바르셀로나올림픽 당시 케빈 영(미국)이 수립한 종전 기록(46초78)을 0.08초 앞당겼다. 8월 2020도쿄올림픽에선 45초94로 다시 한번 세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여자 100m와 200m에서 금메달을 따냈던 톰프슨은 도쿄에선 3관왕(100m, 200m, 400m 계주)에 올랐다. 여자 100m 결선에서 10초61의 올림픽신기록을 세운 톰프슨은 2회 연속 올림픽 여자 100m·200m를 동시에 제패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남창현 기자 yoshike3@donga.com

‘타격왕’ 이정후냐? ‘통합 우승’ 강백호냐?

연말 시상식 트로피 싸움이 이정후 선수가 뽑는 상까지 거머쥘지 관심 KT 첫 영광 이끈 영웅 강백호도 막강

동료 선수들이 직접 수상자를 뽑는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올해의 선수상’ 시상식이 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다. 프로야구 부문 수상자는 11월 끝난 2021시즌 KBO리그 성적을 바탕으로 선정된다. 스포츠동아는 올해 다승, 타율, 홈런 등 주요 부문에서 각 팀 최고 성적을 선수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했다.

동아스포츠대상은 여러 시상식 중에서도 선수들이 직접 수상자를 뽑아 그 의미가 더 크다. 선별된 50명의 투표인단은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에게 직접 투표했다. 공교롭게도 ‘타격천재’들의 싸움이 벌어졌다.

먼저 올 시즌 타격왕을 차지한 키움 히어로즈 이정후(23)가 유력 후보로 부상했다. 이정후는 123경기에 출전해 타율 0.360, 7홈런, 84타점, 78득점의 성적을 거뒀다. 중견수로서 안정적 수비력도 뽑혔다. 그야말로 공수에 걸친 만능플레이어로 팀의 가을야구 진출을 이끌었다.

이정후는 11월 29일 열린 ‘2021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에서 타격왕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종 연말 시상식을 휩쓸며 트로피 수집에 나선 상태다. 선수들이 직접 뽑는 대망의 동아스포츠대상에서도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쥘지 관심이 모아진다.

KT 위즈 강백호(22)는 이정후에 맞서는 가장 막강한 경쟁 후보다. 올 시즌 142경기에서 타율 0.347, 16홈런, 102타점, 76득점을 올리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전반기 95경기에선 타율 0.395를 기록하며 4할 타율에 도전하기도 했다.

강백호는 타격왕 수상이 유력했으나 이정후의 후반기 맹추격을 뿌리치지 못



한국야구의 현재이자 미래가 ‘메디힐과 함께하는 2021 동아스포츠대상’ 야구 부문 수상을 두고 다툰다. 통합우승을 이끈 KT 강백호(왼쪽)와 세계 최초 부자 타격왕에 오른 이정후가 유력 후보로 꼽힌다.

한 채 결국 타이틀을 내줬다. 그러나 이정후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내며 2021시즌의 진정한 승자로 남았다. 팀의 정규시즌-한국시리즈 통합우승에 앞장섰다.

타격천재들의 싸움에 조용히 도전장을 낸 베테랑 후보도 있다. KBO리그 최

고의 공격형 포수로 꼽히는 NC 다이노스 양의지(34)다. 양의지는 올해 팔꿈치 부상 때문에 주로 지명타자로만 나왔지만, 141경기에서 타율 0.325, 30홈런, 111타점, 81득점을 올리며 제 몫을 다했다. 특유의 험린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도 타 팀 선수들에게 고평가를 받은 요

인이다. 타격천재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끝날지, 아니면 베테랑 포수가 깜짝 반전에 성공할지로 관심을 모으는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상 수상자는 6일 공개된다.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KFA 한국야구위원회 KBO 한국프로야구연맹 KBL 한국여자농구연맹 KVOV 한국배구연맹 대한체육회 KPGA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sportstoto 코리아 1879 하이원리조트 JEONJU PAPER

최혜진·안나린, Q시리즈 출전…경쟁자들 만만찮네

‘유럽여자골프 신인왕’ 티티쿨 세계랭킹 14위 아야코 등 경쟁 순위 높아야 LPGA 진출 유리

캘리포니아(Q) 시리즈를 통해 내년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정규투어 입성을 노리는 최혜진(22)과 안나린(25)이 만만치 않은 경쟁자들을 만났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 통산 10승을 기록한 최혜진과 2승을 수확한 안나린은 미국 엘라베마주 모빌에서 2주에 걸쳐 총 8라운드 144홀로 진행되는 Q 시리즈에 출전한다. 1차 최종전은 3일(한국시간)부터 매그놀리아 그로브 골프코

스에서 열리고 2차 최종전은 10일부터 하일랜드 오크스 골프코스에서 치러진다.

총 110명이 출전해 1차 최종전에서 상위 70위(동타 포함) 안에 든 선수만 2차 최종전에 나설 수 있다. 최종 상위 45위 이내에 들면 내년 LPGA 투어에서 펄 자격을 얻게 되는데 순위가 높을수록 출전할 수 있는 대회가 많아진다. 10위 안에 들면 거의 모든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최혜진(53위)과 안나린(67위)은 여자골프 세계랭킹 100위 이내 자격으로 최종전 출전 자격을 얻었다. 수석을 하면 금상첨화겠지만, 최대한 순위를 끌어올려 내년 시즌 성공적으로 미국 무대에 데뷔하기 위해서는 유럽투어와 일본투어에서 빼어난

성적을 거둔 경쟁자들을 따돌려야 한다.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올 시즌 유럽 여자프로골프투어(LET) 신인왕과 올해의 선수상을 석권한 아타야 티티쿨(태국)이다. 18살에 불과하지만 세계랭킹 18위에 올라있는 티티쿨은 올 LET에서 두 차례 우승한 강자다.

티티쿨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도 있다. 14위 후루에 아야코(일본)가 주인공이다. 올해 3승 등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서 통산 7승을 거둔 후루에는 지난 7월 LPGA 투어 예비망 챔피언십에서는 4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2019년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 여자 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시부노 히나코(일본)



최혜진

안나린

도 있다. 당시 우승으로 LPGA 직행 티켓을 확보하고도 미국 진출을 사양했던 그는 뒤늦게 Q 시리즈에 나선다. 올해 JLPGA 투어에서 2승을 챙겼고, 세계랭킹은 38위다.

이미향(28)과 객민서(31)처럼 투어 카드를 잃고 재기를 노리는 우리 선수들도 있다. 2013년 투어에 데뷔한 뒤 2014년 미즈노 클래식과 2017년 스코티시 여자오픈에서 정상에 올랐던 이미향은 올해 부진으로 Q 시리즈에 나서게 됐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BTS 소속사 주식 팔고 100억 확보, 왜?

멤버들 매도 후 하이브 연일 하락세 소속사 “개인적인 일 매도 배경 몰라”

그룹 방탄소년단의 멤버들이 소속사 하이브의 주식 약 100억원어치를 매도해 현금화했다. 하지만 하이브의 주가가 하락세여서 이들의 주식 매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보면

방탄소년단의 리더 RM(김남준)은 10월 13일부터 11월9일까지 7차례에 걸쳐 1만 385주를 장내 매도했다. 모두 32억4694만원의 어치다. 제이홉(정호석)은 10월22일 5601주를 주당 33만2063원에 매도, 18억 5988만원을, 진(김석진)은 10월19일 1만 6000주를 주당 30만2688원에 팔아 48억 4301만원을 각각 현금화했다. 이로써 이들은 모두 99억4983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하이브 최대주인 방시혁 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3월 장상에 앞서 이들과 함께 슈가·지민·뷔·정국 등 방탄소년단 멤버들에게 각각 47만8695주를 증여했다. 1인당 6만8385주로, 2일 현재 1인당 평가액은 총 33(33만원) 기준 슈가·지민·뷔·정국 각 240여억원, 제이홉 220여억원, RM204억원, 진 184억원이다.

하이브 주가는 방탄소년단의 미국 LA 대면 콘서트와 회사의 NFT(대체불가토) 사업 진출, 올해 3분기 매출액 3410억원, 영업이익 656억원의 최대 실적 등에 힘입어 10월 중순부터 상승해 11월17일에

는 42만1500원의 최고가를 경신했다. RM 등은 고점에 주식을 팔지는 않았지만,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얻으려 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2일 하이브의 한 관계자는 “멤버들의 개인적인 일이며, 매도 배경 등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주식 매도 이후 하이브는 연일 주가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기로 향후 대면 콘서트 개최가 불투명해진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